

최우수상 고엽제전우회, 우수상 무공 충북지부 선정

선양활동 우수단체 시상

선양활동 우수보훈단체 최우수상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우수상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각각 뽑혔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7일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선양활동 우수단체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수상한 각 보훈단체들의 선양활동 내용.

□ 최우수상 :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회장 황규

승)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이주여성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해 3월 코로나 성금 300만원을 기부하는 한편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독일, 캐나다, 베트남 등 해외지부의 회원들과 교민사회에 총 8,000장의 마스크를 지원했다.

□ 우수상 : 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지부장 박종규)는 2011년부터 봉사단을 구성해 농촌 일손돕기, 이·미용봉사,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교통안전 캠페인, 나라사랑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충북지부는 농촌 일손돕기의 공헌을 인정 받아 충북도로부터 봉사단체 특별상을 받았다. 또한 장례의전 선양단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오면서 유족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장려상 : 상이군경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김덕남)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상이군경회 연로 회원, 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등 3개 단체와 6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방역마스크 110만장을 전달했다.

국가적 재난사태를 맞아 4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마스크를 지원함으로써 보훈가족으로부터 시의적절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장려상 : 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회장 이화중)는 지난해 8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회원복지지원기금을 마련해 위문금과 함께 생필품 등을 전달하며,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회원들을 위로했다.

월남전참전자회는 또한 2012년부터 유가족들을 초청해 격려행사를 열고 있다.

상이군경회 총회 유을상 회장 당선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지난달 27일~28일 양일간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총회에서는 유을상 회장을 제26대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지난해 주요업무보고와 감사보고에 이어 올해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예산안을 승인했다. 지난해 모범적인 활동을 한 지부와 회원을 표창했다.

유을상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이용사가 보다 나은 수준의 보상금과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몰군경유족회 총회 주요사업계획 확정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는 지난달 27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사진>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감사보고,

주요 회무 실적보고와 올해 주요사업 계획안을 심의 의결한데 이어 지난해 전몰군경유족회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부와 회원을 표창했다.

김영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도 모두 힘내시길 바란다”면서 “회원복지 등 현안해결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회원 여러분의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총회 강길자 회장 재선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는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총회에서는 강길자 현 회장을

제21대 회장으로 재선출했으며,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올해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예산안을 승인했다.

강길자 회장은 재선출 인사말을 통해 “전몰·순직군경 미망인의 보상금 인상, 자녀 1인에 대한 보상금 승

계, 보다 나은 수준의 의료비 감면 등 숙원사업과 미망인들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총회 모범 지부·회원 표창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반포 서래나루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회계감사

보고와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회계결산안 등을 의결했으며, 지난해 모범적인 활동을 한 지부와 회원을 표창했다.

이종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특임은 산적한 현안과 난관을 어느 때 보다 비장한 각오와 결의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필히 극복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면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고엽제전우회 총회 황규승 회장 재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지난달 26일 세종시 흥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사진>

이날 총회에서는 황규승 현 회장을 제9대 회장으로 재선출했으며, 지난

해 사업결산과 올해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황규승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어려울 때일수록 모두 합심해 극복하자”면서 “다시 한 번 얻게 된 4년의 시간

동안 고엽제전우회의 재도약을 위해 힘쓸 것이며 고엽제법 개정을 통한 유족 승계와 후유의증 철폐, 전투수당 지급 문제 등 회원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